“광고·드라마로 접한 클래식, 친숙하지 않나요”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 펴낸 피아니스트 조현영

만화·영화·문학으로 클래식 즐기기 ‘사계’ 등 60곡 소개

2012년부터 라이브 연주 함께 강연 전국적 브랜드 자리매김

“행복한 삶 해답중 하나는 음악 여러 사람 즐겨야”

피아니스트 조현영(40)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피아노를 만났다. 여느 아이들 처럼 ‘악기 하나’ 배운다는 마음이었다. 중학생 때는 방학이 되면 피아노 학원에 다니곤 했다. 이과였던 그녀는 뒤늦게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어 고 3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으며 공부를 시작했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거쳐 1998년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로 떠났고 쾰른 국립 음대 등에서 수학한 후 2004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연주자로, 교육자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여느’ 피아니스트처럼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광주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에서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라는 이름으로 첫 강좌를 열면서 꿈은 현실이 됐다. 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녀가 첫 책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를 펴냈다. ‘클래식을 즐기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광고, 만화, 영화, 문학, 그림, 공간 6가지 키워드를 길라잡이로 삼았다.

만화영화 ‘개구쟁이 스머프’에서 가가멜이 등장할 때 흐르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 등장하는 드뷔시의 ‘바다’, 기아자동차 ‘포르테’ 광고에 등장하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3악장. 친숙한 것들을 통해 듣는 ‘클래식’은 귀에 잘 들어온다.

책에는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텔레만의 ‘바순 소나타’ 등 모두 60곡을 소개했고, 각 곡마다 QR 코드를 넣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녀는 서문에서 “제가 경험한 클래식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이고, 사랑이며, 한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였다”고 썼고 그 내용들을 글로 풀어냈다.

“사실, 클래식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드라마 ‘OST’를 통해 우리가 작품에 대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는 것처럼 ‘어디서 나온 무슨 음악’처럼 광고, 드라마 등 클래식을 접하는 경로가 친숙하다면 좀 편하게 클래식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6개의 테마를 잡았죠. 음악사에서 꼭 들어야할 곡 등 여러가지 필터링을 통해 곡을 선정했습니다.”

조 씨는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진행한 ‘피나노 토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고 말한다. 이번 책에 등장하는 곡들 역시 강의와 연주를 통해 모두 한번쯤 소개했던 작품이다.

“독주회를 하고, 그룹 연주회를 하고, 전공생을 가르치고. 유학을 다녀온 이들이 걸어온 길을 저도 오랫동안 걸어왔죠. 아마도 제가 그 코스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처럼 음악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잘 아는’ 몇명만 향유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연주하고 강연하고, 또 그들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됐어요. 대개 먹고 살기 힘든데 클래식은 들어서 뭐해? 이런 말 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음악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게 제 역할이구요.”

이번 책의 카테고리 중 ‘공간’이라는 테마 아래 풀어놓은 이야기는 가슴을 싸하게 만든다. 보수적이지만 4형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태광산업 ‘쾨헬’로 듣곤 했던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아버지의 방’, 유학 시절 수만 번 듣고 수천 번 연습했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2악장’이 어느 날 설악산 한계령에서 전혀 다른 감성으로 다가왔던 이야기 등이 담겼다.

그녀는 서울 길담서원, 한국가곡예술마을, 전남도교육연수원, 서울시 교육연수원, 구청과 도서관의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 ‘조현형의 피아노 토크’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또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에도 출강중이다.

그녀 강의가 요즘 유행하는 클래식 강좌와 가장 다른 점은 생생한 ‘라이브 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강의 중 언급된 곡을 직접 연주로도 들을 수 있는 건 큰 행운이다. 보통 1시간 30분 강의에서 많으면 10곡, 적어도 5곡 정도 연주를 한다. 그녀는 앞으로 ‘조현형 피아노 쇼’를 해보소 싶다고 했다.

“지난해 체홉의 연극 ‘세자매’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요. 첫째 딸로, 직접 연기를 하고 피아노를 치는 역이었죠. 연습만 하고 실제 공연은 하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작업이었어요. 클래식이라는 콘텐츠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테마는 많을 것같아요. 바흐의 막달레나, 쇼팽의 죠루즈 상드처럼 작곡가들의 ‘뮤즈’를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독주회를 준비할 때는 악보하고만 싸우지만 피아노 토크를 진행하고 글을 쓰면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돼 좋은 것 같아요. 신문을 많이 읽고 음악과 정치, 음악과 경제 등 다양한 아이템을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즐거운 경험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일이 저는 가장 재미있고 행복해요.”

조 씨는 이번 책에 넣지 못했던 ‘교과서 음악’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신예 현악 4중주단 ‘아벨 콰르텟’ 연주회

11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떠오르는 신예 현악 4중주단 ‘아벨 콰르텟’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3년전에 결성된 ‘아벨 콰르텟’은 이번 콘서트가 첫 정기연주회지만 지난해 제9회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해 독일 아우구스트 에버딩 국제 콩쿠르 2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2위와 청중상을 수상하는 등 실내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이다.

또 이미 금호라이징스타 시리즈 데뷔 무대, 통영국제음악당 모차르트 위크 초청 연주 등을 통해 국내 팬들에게도 인상적인 연주를 선보였으며 최근 제5회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에서 우승, 2년간 활동을 후원받게 됐다.

히브리어로 ‘생명력’, ‘숨’을 뜻하는 그룹 이름 ‘아벨(Abel)’이 의미하듯, 국내 실내악계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팀이다.

바이올린 윤은솔과 이우일, 비올라 김세준, 첼로 조형준으로 이뤄진 ‘아벨 콰르텟’은 2013년 독일 유학 중 결성됐다.

연주 레퍼토리는 고전과 현대 음악을 아우른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라장조 작품 21번’, 리게티 ‘현악사중주 1번 야상적 변용’, 슈만의 ‘현악사중주 바장조’를 만날 수 있다.

8월12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도 공연이 열린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그룹 ‘도드리’ 곡성 봉두산 국악축제

내일 죽곡면 국악 캠프장…김원중·유상호씨 등 출연

‘창작국악단 도드리’를 이끌고 있는 김재섭 단장은 수십년 전부터 단원, 제자들과 함께 백운산 자락 등 산세 좋은 이곳 저곳을 찾아 ‘산공부’를 해왔다.

김 단장은 지난해 곡성군 죽곡면 봉두산 아랫마을에 집을 지어 이사를 갔고 이곳에서 피리, 소금 등 악기 체험을 위주로 한 소박한 국악 캠프를 열었다.

김단장과 도드리 단원들은 올해부터 작은 음악 축제를 시작한다. ‘자연이 부른다! 사랑을 노래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봉두산 메아리 축제’다. 5일 오후 2시 곡성군 죽곡면 도드리 국악 캠프장.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하는 남도 문화특화사업에 선정돼 진행하게 된 축제는 공연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도드리 이외에도 죽곡 청년회 등이 함께 축제를 준비했다.

공연은 국악실내악곡 ‘죽향풍월’로 문을 열며 이세현씨가 국악 가요 ‘상모’와 ‘자유’를 들려준다. 또 국악관현악곡 ‘섬진강’, ‘컨템포러리 아리랑’을 연주하며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 가수 이선희가 불러 사랑을 받은 가요 ‘인연’과 ‘아름다운 강산’을 김보배씨 노래로 국악 반주에 맞춰 선한다.

단원들 이외에 초청 뮤지션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색소폰 연주자 유상호씨가 ‘목포의 눈물’ 등을 들려주며 가수 김원중씨는 ‘바위섬’, ‘강물처럼’을 선사한다.

2부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노래 자랑 ‘나도 가수’가 펼쳐지고 다양한 먹을거리파티도 마련된다. 또 곡성군 지역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도 운영한다.

김재섭 단장은 “공연장을 찾아오는 일반 관객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 생각”이라며 “올해 행사를 잘 치르고 난 후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축제를 치를 지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8987-69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난영 조카, 친딸 둔갑…공연 취소해야”

기념사업회 주장…문화전당 “문제 없다”

목포의 눈물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가 “이난영씨의 조카가 그의 딸인 것처럼 홍보됐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될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전당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3일 보도자료에서 “보도자료에서 김시스터즈의 김민자씨를 이난영의 딸로 밝히고 있으나 김씨는 이난영의 오빠인 이봉룡의 딸 ‘이민자’로 조카가 딸로 둔갑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전당측은 지난달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19~20일 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 이난영 100주년 기념 공연을 한다고 홍보했다. 전당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난영의 딸로 김시스터즈 활동을 했던 김민자와 그녀의 남편인 체코 출신 드러머 타미 빅이 출연, 이난영과 남편인 작곡가 김해송, 김시스터스의 히트곡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당 관계자는 “이난영의 딸이 기념 공연에 출연한다고 강조하며 홍보한 적은 없었다”며 “법적으로도 김민자씨가 딸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지역의 훌륭한 음악인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공연을 취소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공연은 대중들과의 약속인 데 뚜렷한 이유없이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시내(062)

북구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중흥	654-2985
동구	남광	222-944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1896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0583
광산구	월곡	941-9174
	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전남(061)·전북(063)

동부권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중부권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서부권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전북권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과즉1등 맛집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